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초기대응 절차

2013.10



학교폭력 사안처리 10대 유의사항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유의사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2.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중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다.
5.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한다.
6.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다.
7. 자치위원회 결과는 **‘학교장 명의’**로 서면통보하고, 이때 **재심 등 불복절차**를 안내한다.
8. 자치위원회 **회의록 및 사안조사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단, 관련학생 및 학부모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폭법 제21조에 의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9.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10.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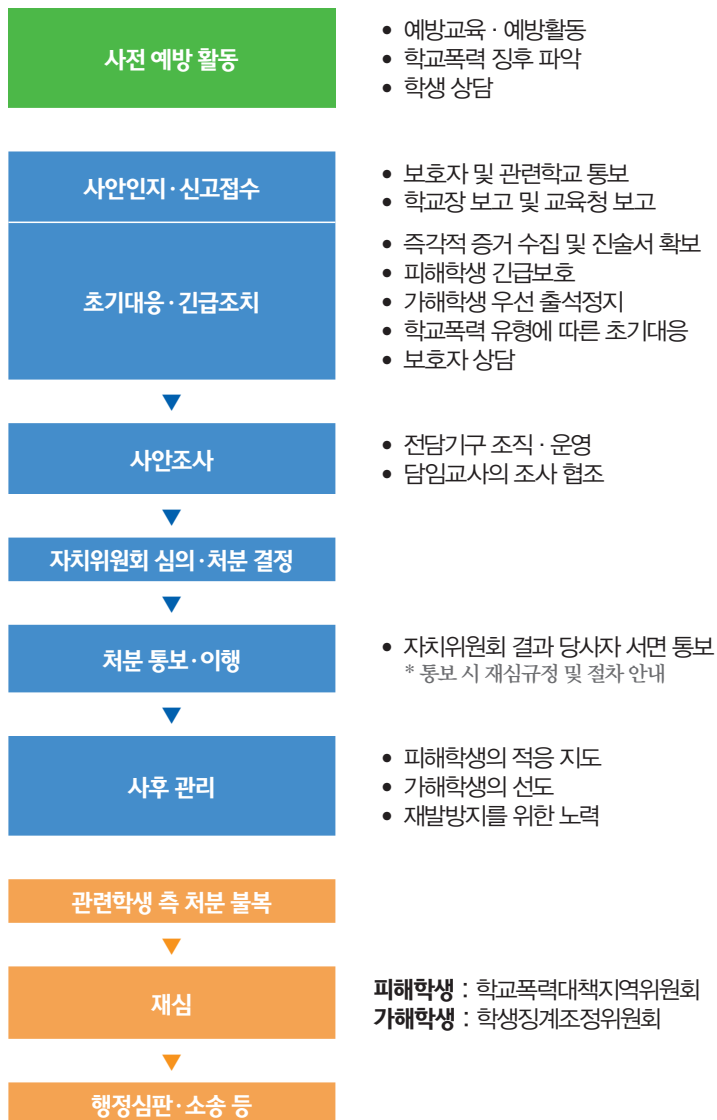
목차

| | |
|----------------------|----|
| 1. 학교폭력 이해하기 | |
| 01. 학교폭력의 개념 | 3 |
| 02. 학교폭력의 유형 | 4 |
| 2. 학교폭력 처리 절차 | |
| 01. 초기 감지 · 인지 | 5 |
| 02.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 6 |
| 03. 사안 처리시 우선 확인 사항 | 7 |
| 04.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 8 |
| 05.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 | 9 |
| 3.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 |
| 01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 | 10 |
| 02. 학생 상담 시 주의사항 | 14 |
| 03. 보호자 상담 시 주의사항 | 14 |
| [부록]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 16 |

도움을 주신 분

강은정 (휘경여중 교사)
고광삼 (경신중 교사)
서정현 (당산서중 교사)
조은 (신화중 교사)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1. 학교폭력 이해하기

01. 학교폭력의 개념

| | |
|---|--|
|  <p>학교폭력이란?</p> | <p>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p> |
|  <p>따돌림이란?</p> | <p>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p> |
|  <p>사이버 따돌림이란?</p> | <p>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p>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하 “학폭법”) 제2조

» 유의 사항

-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 » 학폭법상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 실시
 - ※ 가해 측이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

02. 학교폭력의 유형

| 유형 | 예시 상황 |
|--------|---|
| 신체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때려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상대방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 |
| 언어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 금품 갈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
| 강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 따돌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못 어울리도록 막는 행위 등 |
| 성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
| 사이버 폭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 |



2. 학교폭력 처리 절차

1. 초기 감지·인지

» 드러나지 않은 학교폭력에 대한 징후 발견 등 감지 노력과 더불어
드러난 학교폭력 사안을 모른 채하지 않고 적극 대처하는 노력 모두 필요



학교폭력 감지·인지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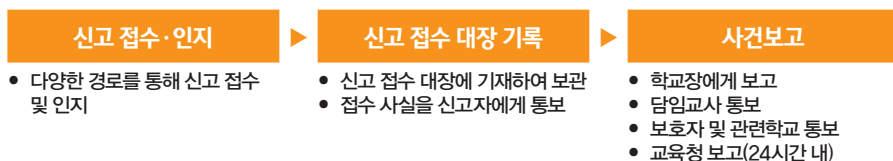
| 유형 | 내용 |
|------------|--|
| 학교폭력 실태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실태조사(연2회 전국 공동 실시) 학교·학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실태조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파악하여, 지도 방안 마련 |
| 교내 학교폭력 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문자, 메일, 스톱불링의 익명신고·상담(www.stopbullying.or.kr) 등 다양한 신고 체계 마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
| 상담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에 의한 상담 |
| 교내외 순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심시간, 쉬는시간 등 취약시간 순찰(학교장, 교감, 직원 등 참여)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
| 학교폭력예방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 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상담기관 홍보 |



[필독] 폭력서를 관련 정보 획득 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보

» 교원 또는 학생 상담 인력은 학생 상담 및 지도 과정에서 폭력서를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경우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정보는 제외하고 폭력서를 관련 정보만 전달하도록 한다.

02.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1. 신고 주체

「학폭법 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신고의무」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필독]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책임 하에 관련 사항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 사안 발생시 교육청 미신고 건은 은폐·축소 등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

<보고사항 : 관련양식에 따라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송(중대 사유는 유선 보고 병행)>

- ① 사안신고 접수 또는 인지(인지 후 24시간 이내)
- ② 자치위원회 개최 일정
- ③ 자치위원회 결과(조치 내용)

2. 신고자에 대한 대처

신고자가

- 피해학생인 경우 :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상담자·해결자로서의 역할
- 목격학생인 경우 : 신고행동 칭찬·협력관계 구축, 다른 목격학생 유무 확인
- 보호자인 경우 :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기 및 협력관계 구축
- 교직원인 경우 : 정확한 사안 파악 및 협력관계 구축



[필독] 신고 받을 때의 주의사항

- ①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기관은 관련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② 신고 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03. 사안 처리시 우선 확인 사항



[필독] 학교폭력 사안 처리시 세 가지 경우를 우선 확인해야 함

- ①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의 여부
- ② 학폭법 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의 여부
- ③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의 여부

1.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판단의 기준

-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 조치 사항

- 사안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화해 지도
-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7일 이내에 미해결시 학폭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
-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담임 종결건의 조치사항도 반드시 학교장 및 전담기구에 보고
※ 담임종결건의 경우도 사안 신고 접수 시 24시간 이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함

2. 학폭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 적용 대상

- 일반적인 사안 및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안

○ 대응 요령

- 사안 인지 후 필요에 따라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의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조치를 실시하고, 자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개최 연기 가능) (‘13.09 변경지침 참고)
- ※ 뚜렷한 이유 없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축소로 간주될 수 있음

3.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

○ 사안 유형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치 사항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출석정지기간은 제한 없음)
- 우선 출석정지 조치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 중 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04.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각 구성원의 세부 역할

| 담임교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 | 관리자(학교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학생 관찰• 학생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 심리적 지지 및 안정 추구• 학생 보호자 연락• 사안조사 등에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감<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총괄• 학교폭력 책임교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신고서 관리 및 접수·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 파악· 학교폭력,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 전문상담교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학생 관찰 및 면담· 관련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을 파악· 학생들의 상태에 대한 소견 제시• 보건교사<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피해 상황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담기구,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의 지도·감독• 필요시 피해추정학생 긴급보호 및 가해추정학생 우선출석조치 등 긴급조치 |

사안조사시 유의사항

- 신고 접수 또는 사안 인지 시 담임, 관련 교사 및 전담기구가 상호 협력하여 신속한 증거수집 및 조사
-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와 언행 유지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추가적 분쟁 발생 억제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시 중점파악요소

| 폭력 유형 | 중점 파악 요소 |
|-----------|--------------------------------------|
| 신체적 폭력 | 발생 경위,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
| 경제적 폭력 |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
| 정서적 폭력 | 괴롭힘 |
| | 따돌림 |
| |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
| 언어적 폭력 |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
| 사이버 매체 폭력 |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

05.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

자치위원회 기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확인 기회부여
-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



[필독]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 피해학생 치료·상담 등의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에 따른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정학습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 입력 영역 | 가해학생 조치 | |
|-------------|------------------------------|--------------------------------------|
| 학적사항 특기사항 | • 8호(전학) | • 9호(퇴학처분) |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4호(사회봉사) • 6호(출석정지) |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1호(서면사과)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7호(학급교체) |

- (1,2,3,7호 조치) 졸업 후 즉시 삭제
- (기타 조치)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인정받은 경우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 가능, 그 밖의 경우 졸업 후 2년 뒤 삭제 *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필독]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함.
-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함.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학교폭력 발생 시 초기 대응

학교폭력
사안발생

▶ 관련학생
안전조치

▶ 보호자
연락

▶ 피해·가해
학생 상담

▶ 관련 교사 및
전담기구
사안조사

이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

⇒ 신체폭력

○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조치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연락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
- 관리자와 해당 교사, 학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 | |
|-------------|--|
|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연락, 보건교사에게 연락 • 병원 이송 시 반드시 동승 |
| 학교폭력 전담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감 : 상황 파악, 지시 • 책임교사 :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보건교사 :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반드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 상담(교)사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

⇒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 피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설, 헐박 등에 무응답 할 것을 지도 • 인터넷, 모바일 상의 언어폭력은 저장(캡처) • 보호자에게 연락, 필요시 상담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 보호자에게 알림 |



사이버폭력

○ 평소 예방교육

- 인터넷 사용 예절, 정보통신 윤리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
- 피해, 가해 사실은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교육
- 가정에서도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실시토록 안내

| 피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박성 문자가 오면 무응답 할 것을 지도 • 인터넷, 모바일 등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캡처) • 학교전담경찰관, 학교교사 등을 SNS 친구로 등록 하여 사이버 폭력 피해 발생시 즉시 대화방 초대 • 필요시 상담 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증거를 철저히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 • 피해학생에게 사이버 상에서 사과 |



강요

강제적 심부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폭력서클과 연계되어 있거나, 금품갈취와 함께 일어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학생의 행동 감지

다음과 같은 행동이 있을 경우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옷 등을 빌려준다.

| 피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한다. • 당분간 부모가 등·하교 길에 동행하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따돌림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는 피해사실 공개 금지하기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며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 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가해학생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필독] 피해 신고를 꺼리는 학생 설득하기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처벌을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 ① 피해를 당했을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됨
- ②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을 멈출 수 있음

| 피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적절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업이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 관련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나 상담소견서 등을 교사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 포함된 '교우관계 회복기간'은 추후 확정 후 안내 예정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 성폭력 발생 시 대처 요령

- 사건 인지 즉시 · 반드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 응급처치: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
*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의료기관에 이송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증거물 수집 및 보관 등 전문상담 및 조치

1899-3075 원 스태프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366 여성긴급전화

- 피해학생 상담 시에는 비밀 보장 및 2차 피해 주의
-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도모
- 성폭력 발생으로 인한 자살 위험성 파악
-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 목격자 및 주위 학생에 대한 조치: 성폭력 비밀누설 금지 유의사항 전달
- 피해학생 보호자와 협의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조치 강구



[필독] 성폭력 사안 관련 유의 사항

-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사안의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 관계기관 연계(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시에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함
- ② 학교장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즉시 유선 보고
- ③ 성폭력 관련 사실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가 되며, 피해 사실을 유폐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④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 진술로 대체할 수 있음
 - －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해 학폭법상의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갈음할 수 없음

02. 학생 상담 시 주의사항



관련 학생들을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

- 피해 ·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대화는 지양
- 관련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금지
-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 실시

03. 보호자 상담 시 주의사항



보호자를 만날 때의 대처

- 관련 학생의 보호자는 흥분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 교사는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피해 · 가해학생들에 대한 보호 및 지도 조치를 통하여 책임지고 돕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
- 감정이 격앙되어 오히려 문제해결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학생 보호자들을 같은 자리에서 만나지 않도록 한다.
- 보호자들은 교사의 표현 중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학생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 사안을 축소하려는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대화 시에 이를 유념한다.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 시

- 우선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 보호자가 말하는 학생의 피해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어린 유감을 표현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
(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 추후 처리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 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 사안 축소 · 은폐로 의심될만한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다.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대개 흥분할 가능성이 많고, 그 분노가 교사에게 표출될 수 있는데 이때 교사는 보호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경청·공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했을 때

가해측의 부모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축소 내지 합리화할 때, 학교측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일 때, 그리고 피해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후유증이 명확하게 예상될 때 피해학생 부모는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측의 대처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해·가해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가해학생 보호자 면담 시

가해학생 부모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 보호자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면담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말이 자칫 보호자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치위원회'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한다.
-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감정을 일단 수용하되, 가해학생의 행위는 정확히 알려준다.
- 피해학생의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 피해측에 대한 가해측의 진심어린 사과의 중요성을 인지시킨다.
- 사안처리 절차와 예상되는 결과를 알려준다.
- 가해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와 선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 이번 일로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낙인찍히지 않을 것임을 알려준다.
- 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
- 가해학생의 처벌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죄책감 등의 감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부록]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3.7.23)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 및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강화

-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단계별 개발·보급(~'15)
 - * 학교급별(초저·초고·중·고), 대상별(학생·학부모·교원), 핵심요소별(공감·의사소통·갈등해결·자기존중·감정조절·학교폭력인식및대처) 등 96종 개발
 - * '13년 2학기 300개교 시범운영(9월~), '17년 모든 학교에 적용·실시 기반 마련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
- 학교의 다양한 예방 활동(학생 동아리, 또래보호, 학급야영, 담임·학생 소통 등) 적극 권장
 -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학교를 선정('어깨동무 학교')하여 지원
 - * '어깨동무 학교' 육성 : ('13년 2학기) 1,000개교 → ('14년~) 3,000개교 이상
- **학교 단위별로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시행**
- **학교 내 대안교실 설치·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응
 - * 시범학교 운영('13, 100개교) 및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추진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 학교폭력 유형별(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폭력서클)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
- | | |
|--------------|--|
| 언어폭력 | 교육과정 연계 바른 언어 사용 교육 강화 |
| 사이버폭력 | 사이버 폭력 발생 시 즉시 개입·지원 체계 구축 |
| 집단따돌림 | 관계 회복에 역점을 둔 '교우관계 회복 기간제' 도입 |
| 성폭력 | 성폭력 피해학생의 사생활 보호 강화 및 예방교육 내실화 |
| 폭력서클 | 경찰과 학교의 유기적 협력 을 통한 수준별 대응 체계 구축 |



피해학생 보호·지원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 * 전문기관(Wee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및 병·의원 연계관리 체계 구축(9월~)
 - *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검사·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추진

○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설치·운영**

* 확대 계획 : ('13.7월)16개 → ('13.12월)19개 → ('14) 21개 (모든 시·도)

○ 다양한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지원**

* 우리아이 행복 프로젝트, 가족 힐링캠프,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등

○ '**선치료비 지원제도**'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확대**

* ('13) 모든 중학교 Wee클래스 설치 → ('14) 모든 교육지원청 Wee센터 설치 → ('15) 모든 시·도교육청 Wee스쿨 설치

○ 가해학생 조치 **학생부 기재 개선**

* 학생의 반성 및 행동변화를 졸업 전 심의하여 졸업과 동시에 삭제(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후 2년 뒤 삭제)



학교폭력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교육청 즉시 보고** 및 주요 처리 단계별 실시간 보고 체계 구축

○ 은폐·축소 등 부적절 처리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사안처리 점검단**'* 운영

* 중앙·교육청 단위 점검단 구성·운영(변호사, 상담사, 업무담당자 등)



안전한 학교 구축 및 전사회적 대응 강화

○ 고화소 CCTV(100만 화소 이상) 단계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교내 CCTV(고화소 비율) : ('12) 10만대(고화소 3%) → ('13) 13만대(고화소 5%)

** 노인일자리사업(복지부) 연계 : ('13년) 2,600명 → ('14년) 10,000명 확대

○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조회 의무화('13.7.30. 법률공포)

○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및 고위험 학교 집중 배치

* ('13)681명→('14)1,138명(고위험학교 1인당 1~5개교, 일반학교 1인당 10개교)

○ 학교시설 설치·변경 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및 시범학교(100개교) 운영('13~)

○ 학교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지정 추진



www.moe.go.kr
www.stopbullying.or.kr